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2012
제232호(통권451호)

6

■ 장학특집 / 나라사랑교육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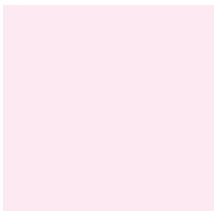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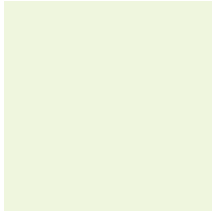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6 제232호(통권451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08 특집 /
나라사랑 교육

• 역사를 잊으면 나라를 잃습니다 / 고영진

•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 속의 감성 교육 / 강정갑

• 나라사랑교육의 방향과 과제 / 강윤진

• 2012 나라사랑교육 역점과제 추진 계획 / 황원판

• 나라사랑교육과 역사교육 / 정병식

• 독도사랑 교육자료 개발의 취지와 활용 방안 / 권순희

• 계기교육! 나라사랑 디딤돌 / 최상태

• 소통과 공감으로 통일관 확립 / 유승규

23 좋은 수업 다지기

• 과학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신장 / 김점중

•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 이연호

•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음중재 기법 / 이지은

29 교육정보

30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 이달의 교육기부

• 즐거운 토요 8색 테마프로그램 운영 / 이영이

• 더불어 신나고 함께! 앞찬 꿈이 자라는 Happy School / 제영만

34 명품학교, 명품교육

• 배영어린이 Dream-Up 프로젝트를 위한 교육기부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 한용희

• 해양 하모니 교육을 통한 77지 좋은 습관 형성 100일 직전 / 김병련

• 인성기반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으로 나눔과 배려하는 마음 기르기 / 정유진

• 환경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금서교육 / 오상진

• 연극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 안병철

• 자성, 인성, 감성교육의 삼박자 속에 올려 퍼져는 금빛의 메아리 / 이해란

• 소셜미디어를 통한 영어공부 / 최재용

51 전문가초대석

54 참여마당

• 교 원 - 나는 아직 새내기 교사랍니다 / 손경혜

• 학부모 - 난 너희들이 어른새이 되도록 내 인생을 걸어 도와줄 것이다 / 임희정

• 학 생 - 지리산 외할머니 / 김동근

59 향기나는 서가

61 지상갤러리

•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 박명환

• waltz / 장성복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7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6월 20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교육미담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6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이왕민,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055) 282-9922



역사를 잊으면 나라를 잃습니다



지난 5월 25일, 북한 장진호에서 이갑수 일병 등 12명의 6·25 참전용사 유해가 서울 공항을 통해 조국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62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미국과 하와이를 돌아 함께 온 12구의 유해 중에는 열여덟 살의 어린 병사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온 이갑수 일병과 그 일행은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에서 조국을 위해 미군들과 함께 산화했습니다.

다시 유월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유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아픈 기억입니다. 민족분단과 전쟁의 아픔은 개마고원 골짜기의 장진 호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우리나라를 최빈국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이산가족과 국토의 초토화, 반세기를 넘어도 봉합되지 않은 도막 난 강산은 남북을 단절시켰습니다.

워싱턴, 뉴욕 맨해튼, 프랑스 파리의 센 강 변, 호주 캔버라, 캐나다 온타리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터키, 에티오피아 아픈쇼베르 공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과 기념탑,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공원과 기념비를 또한 한국전쟁의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미지의 나라와, 만나지도 않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국의 명에 응한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무장한 미군 병사 19명이 이국(異國)의 전장을 향해 가는 조형물 앞에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미국 국기 아래 새겨진 미국 국민의 애도의 마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치른 값진 희생이었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나라의 위상도 높였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의 리더가 탄생하고 IT산업과 문화와 스포츠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날의 희생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안정과 풍요를 받침 한 이갑수 일병과 열여덟 살의 학도병, 이국땅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간 유엔군, 그들에 대해 궁금해 하지도 않고, 알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고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쓰러져갔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어진 연평도 포격, 최근의 GPS 교란 전파공격 등 한국전쟁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은 분단의 상태에 있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국립묘지에 잠든 호국영령들,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 13만여 명의 국군전사자, 천안함에서 산화한 해군병사의 뉘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누리는 이 순간의 평화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역사를 잊는 자, 나라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통일이란 서로 다른 남과 북의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통일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학생층의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통일교육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12. 6.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 01 제31회 스승의 날 교육감 1일 교사(생림중학교)
- 02 고영진 교육감 베트남 훈장 수여
- 03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참석
- 04 소규모학교 경남 FC 축구경기 관람
- 05 제41회 전국소년체전 결단식
- 06 학교폭력예방 종교단체와 협약



06



07—



08—



10—



09—



11—

- 07 창원도서관 - 책 읽는 밤
- 08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 장애, 비장애 아동 캠프 운영
- 09 경남과학교육원 -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 10 하동교육지원청 - 하동사랑 에듀투어
- 11 합천교육지원청 - 독서교육 학부모 연수
- 12 밀양교육지원청 - 관내 전 유치원 건강놀이 한마당

12—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 속의 감성 교육



강 정 갑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영국의 BBC방송은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과 패트릭 터커의 조언을 받아 2112년까지 일어날 스무 가지 일들을 예측해 보도했다. 앞으로 100년 안에 현재의 의사 소통 방법에서 벗어나 송수신 장치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바다농장 경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며, 컴퓨터와 두뇌 연결로 업무 속도가 증가하는 등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하여 공개한 적성검사 변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은 수리·논리력 부분에서는 10년 전보다 향상되었지만 자연친화력, 창의력, 언어능력, 자기성찰능력 등 전인적인 부분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교육이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 개발, 전인적·창의적 인재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인지적 능력이 강조되고 경쟁이 심화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인지적 능력이 중시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미래형 인간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정, 너그러운 마음, 봉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등 자연과 친하게 지내고, 노래·운동 등을 통하여 감성적으로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실현하는 태도를 생활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들로부터 나오며, 창조의 씨앗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테두리 밖에서 80% 이상 나온다고 한다. '머리가 기억하는 것은 잠깐이고, 행동으로 기억하는 것은 길고,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하는 다양한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자는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미래의 세상은 창의성이 성공의 열쇠가 되며 문제가 있으면 항상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창의성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모여 탁구 치듯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서로 다름을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들이 창의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토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하여야만 창의성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네 번째,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부도, 운동도, 놀이도 재미가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된다. 재미있고 놀라운 것을 보면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듯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이든 할 것이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재미있게 놀면 새로운 생각을 만날 수 있다.

끝으로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꿈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처럼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 따라서 능력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며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넘어 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마인드스토밍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교사의 기대만큼 성장한다는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감성교육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습관화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교육의 방향과 과제



강 윤 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장

올해 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서 정부부처에서 나라사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애착 정도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다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학생 중 초등학생의 27%, 중·고등학생들의 50% 이상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국가관과 애국심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웠고, 앞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위해 할 일이 많음을 절감했다.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위의 무역 강대국으로 부상한 나라, 한류라고 일컬어지는 문화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에 사는 청소년들이 이렇듯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닐까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쟁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지만,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조사의 연이은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의 퇴보 등 국가관과 시민의식, 국민적 자긍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니,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 집 너머의 공동체, 사회·국가에 대한 관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해 6월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였다. 나라사랑교육은 독립-호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이어졌던 국가 발전 과정에서 호국보훈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신적 원동력인 애국심을 온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균형 있게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분단

국가로서 최근에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폭침과 지속적인 도발 속에 나라사랑·안보의식의 영역이 더욱 중시되었기에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앞에 ‘선제보훈(先制報勳)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그 의미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호국·안보가 진정한 보훈의 영역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한 국가관·안보관 및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민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로 평창 동계올림픽, 월드컵 유치, 지구촌 리더모임인 OECD와 G20의 회원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러나 국가가 없던 시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도 일장기를 달고 고개 숙인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 자주적 외교관이 없어 입장조차 거부되었던 이준 열사의 울분을 되새기면서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나라사랑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욱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훈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유관 부처 간, 정부와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왔다. 2012년 전국 1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라사랑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하여 나라사랑교육이 호국보훈의 달에만 반짝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어느 교과 과정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보훈캠프’, ‘독립군 체험학교’,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같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청소년 수련원 및 단체 등의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나라사랑교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 IPTV 콘텐츠 등의 교육 자료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다. 작년 겨울의 ‘나라사랑 미술대회(나라사랑 예술이야)’ 나 올해 5월의 ‘애국가 부르기 이벤트’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나라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라사랑교육은 스카우트, 이람단·누리단 같은 학생 단체, 지역의 현충시설, 청소년 교육 기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호국보훈의 정신이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시대정신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나라사랑교육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2011년 6월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 출범 이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현충시설의 교육 담당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얻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해 나갈수록 아쉬운 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생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 교육에 앞서 교사들에 대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경력 교사들은 역사 교육이나 안보교육, 정체성 함양 교육 등을 고경력 교사들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 교사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고 진지하게 가르칠 수는 없으므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커리큘럼 과정에 예비 교사들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나라사랑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의 주무 부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추진체계,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넷째, 나라사랑교육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충시설의 교육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교육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탓에 교육 효과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 인원이 증가할수록 낮은 평가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문인데, 우수한 교육 인력의 확보와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및 태도 조사’는 충격과 함께 희망도 주었다.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청소년의 48.0%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는 2007년 조사에 비해 1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좋은 나라사랑교육을 받는다면, 부정적 국가관과 낮은 애국심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사회의 리더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주시민의식과 정체성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나라사랑교육 역점과제 추진 계획



황 원 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로 ‘이웃 사랑’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라사랑’의 국가의식 및 통일·안보의식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7%가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에 청소년 58.8%가 해외로 도피하겠다고 대답했으며,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연평도 포격이 북한 도발임을 모르거나 남한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초에는 ‘국가인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줄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 역사왜곡에 올바로 대처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 우리의 안보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나라사랑교육이 절실한 시기다.

이에 우리도교육청은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양을 위해 올바른 국가의식 함양교육 강화, 독도사랑·나라사랑교육 강화, 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 강화 등을 올해 역점 시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II. 나라사랑교육 역점과제

1. 올바른 국가의식 함양

가. 올바른 국가의식 함양교육 강화

- ‘국기’, ‘국가’, ‘국화’, ‘국토’ 바로알기 교육(연중)
- 학교주변 ‘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 전개(식목행사 시)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국기계양일)

※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캠페인(연중, 전학교)

나. 나라사랑 계기교육 활성화

○ 나라사랑 계기교육 강화: 국경일 및 기념일 등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적극 참여(6월)

※ 나라사랑 계기교육 자료집 ‘사랑해요 대한민국!’ 발간(6월중)

2. 독도사랑, 나라사랑 교육 강화

가. 독도교육 기반 조성

○ 독도교육 추진 위원회(T/F)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독도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소담초, 영운중, 삼가고)

나. 교원 독도교육 역량 강화

○ 학교장 독도교육 연수(연 1회)

○ 교원 독도 바로알기 토론회(연 1회)

○ 교원 독도 바로알기 직무연수(경남교육연수원)

다. 독도교육 자료 지원

○ 초등 독도인정도서 보급

○ 초등 독도교육 워크북 보급

○ 중등 교육자료 ‘독도지킴이’ 보급

○ 독도교육 홈페이지 구축

○ 독도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 포상

라. 체험위주의 맞춤형 독도교육

○ 독도사랑 체험활동(2박 3일): 도교육청, 희망 교육지원청 및 학교

○ 국토(독도)사랑 우수 체험프로그램 공모·지원: 연 1회

○ 독도사랑 동아리활동 지원: 연 1회

3.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가. 통일교육 기반 조성

○ 통일교육 추진 위원회(T/F)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통일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수산초, 명곡여중, 김해대청고)

나. 통일교육 자료 지원활동 강화

- 통일교육 인정도서 보급(중1~2, 학급당 3부)
- 통일안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연 1회)
-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 포상(연 1회)

다. 교원 통일교육 역량강화

- 통일교육 직무연수(통일교육원 위탁연수) : 희망자 약 130명
- 경남통일교육 포럼 운영(1회)
- 통일교육 담당자 워크숍(1박 2일, 1회)

라. 체험위주 통일교육활동 강화

- 호국·보훈의 달 학예·문예행사 지원(6월)
※ 교육지원청별 약 100만원(총 1천8백만 원)
- 통일·안보 현장 체험 Tour(경남 통일·안보유적지)

III.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도교육청의 역점과제인 나라사랑 교육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했다. 역사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은 몽고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국난(國難)의 시기에 특히 강조되어온 경향이 있다. 물론 이처럼 나라가 어려운 시기의 나라사랑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화는 평화로울 때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평소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지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통일·안보관, 북한관, 호국·보훈의식 등을 길러주는 '나라사랑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나라사랑교육과 역사교육



정 병 식

김해 내동중학교 교장

1. 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분명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국난의 시기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가 있었고,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이들의 나라사랑하는 위국·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국가의 희망이다. 그들의 충만한 이상과 잠재력을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호국·보훈 의식’의 함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호국·보훈 의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도 관련 내용의 폭이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 없이 편성되어 다루기가 어렵다.

이에 학생들에게 호국·보훈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나라사랑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호국·보훈 역사관련 하위요소 및 내용을 추출·분석하여,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해 본다.

2. 펼치면서

가. 호국·보훈 역사교육과정 하위요소 선정

호국·보훈 교육이란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국가를 지키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국가기념일, 호국 인물 및 사건, 주요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호국·보훈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 1>과 같이 호국·보훈 의식의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과 정안, 계기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주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호국·보훈 교육의 목적은 선열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느끼고, 실천하며 자기주도적인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표1>

구 분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독립 운동	항일구국투쟁 민족문화수용운동 사회운동 민족경제운동	독립운동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의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독립운동의 의의와 자신 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전쟁 참전	6.25전쟁 베트남파병 해외파병 국가안보 국토수호	호국·보훈 사건별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호국·보훈 사건의 전개 과정을 연표로 나타낼 수 있다.	호국·보훈 사건이 주는 교훈을 깨닫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다.
국가 상징	국가, 애국가 국기, 국화 국어	국가를 상징하는 것 과 인물들의 역사적 행적을 알 수 있다.	국가상징 및 호국·보훈 인물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인물의 일대기를 요약할 수 있다.	국가상징 및 호국·보훈 인물의 자료를 읽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민주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인권선언	주요 유적지의 위치 와 시대상황을 정리 할 수 있다.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여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주요 유적지 참배를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다.

나. 나라사랑 학습 프로그램 구안·적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선열들의 열을 계승할 수 있는 놀이, 체험, 역할극, 노작활동 등을 통하여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며 호국·보훈 의식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명시한다. 특히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계기교육과 훈화교육, 주요 유적지 탐방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1) 향토역사인물 탐구를 통한 나라 사랑 의식 함양

가) 의병장(곽재우, 사명대사), 논개, 이순신

나) 경남지역 독립운동가 - 김원봉, 국채보상운동, 안희제

다) 경남지역 민주화운동 열사 - 김주열

2) 체험 학습을 통한 나라 사랑 의식 함양

가) 국토 사랑 마일리지 제도

- 나) 우리고장 호국유적지 방문, 보고서 쓰기
- 다) 보훈관련 기념일 조사하기
- 3) 역할극을 통한 나라 사랑 의식 함양
 - 가) 3.1운동 재연하기
 - 나) 3.15 민주화 운동 재연하기
 - 다) 이순신, 광재우 장군 역할 재연하기
- 4) 다양한 문예행사활동을 통한 나라 사랑 의식 함양
 - 가) 나라 사랑 골든벨
 - 나) 나라 사랑 가요제
 - 다) 나라 사랑 전시회
- 5) 역사교육을 통한 나라 사랑 의식 함양
 - 가) 일본의 고대사 왜곡과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비판
 - 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비판
 - 다) 북한의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비판



3. 마무리하며

역사교육을 통한 자료의 개발·적용과 나라사랑 관련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국난극복 및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익혀 통일되고 번영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인물의 넋을 기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독도사랑 교육자료 개발의 취지와 활용 방안



권 순 희
밀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일본의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역사왜곡이 이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경남교육청은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독도교육을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나 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만 일회성으로 할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난해 8월 23일 전국 최초로 ‘독도교육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9월 15일에는 ‘독도교육선언문’의 세부 추진 계획을 담은 ‘독도교육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독도교육을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독도 사랑·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2012학년도 ‘학교급별 독도교육용 교재(도움자료)’를 개발해 도내 전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했다.

여기서는 독도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고, 경남교육청에서 독도사랑 교육 자료를 개발한 취지와 활용 방안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독도교육의 목적 및 학교급별 목표

가. 독도교육의 목적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나. 학교급별 독도교육의 목표

내용 \ 학교급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독도교육의 목표	독도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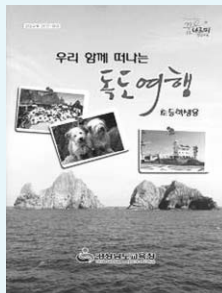
2. 독도사랑 교육자료 개발의 취지

일선 학교의 좀 더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아직 그 양이 충분하지 않고, 몇몇 개발된 자료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실정이라 독도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단위 시간에 찾아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맞춤식’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독도사랑 계기교육 및 훈화자료와 독도사랑 교육자료(부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2012년 4월 각급 학교로 배부 완료한 초등학교용 「우리 함께 떠나는 독도여행」과 중·고등학교용 「우리 땅 독도, 대한의 자긍심」에 이어 6월에는 교과별로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독도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독도사랑 의식 내면화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PPT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3. 독도사랑 교육자료 활용 방안

가. 독도 교육자료 및 교재 활용

초등학생용 독도교육 자료인 「우리 함께 떠나는 독도여행」은 독도를 바르게 알고, 독도에 대한 친숙함과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지도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독도교육 교재인 「우리 땅 독도, 대한의 자긍심」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우리 영토를 바르게 인식하고, 독도 수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 관련 내용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애정과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재들은 교과(도덕, 사회 등의 정규수업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또는 특별활동) 시간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학교행사 및 학교장 훈화 등 특별계기 교육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 독도교재〉



〈중등 독도교재〉

나. 독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및 PP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및 PPT자료는 경남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 단위 위시간마다 초·중등 전 차시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 학교 현장에 바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학교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독도 사랑을 내면화시키고 이를 행동화시킬 수 있는 도움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계기교육! 나라사랑 디딤돌



최 상 태
고성 개천초등학교 교장

1. 왜?

개천초등학교는 전형적인 시골 소규모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3월 14일, 11월 11일 아침에는 어김없이 골마루가 시끌벅적 하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등 근본도 없는 날은 잘도 기억하여 선물을 주고 받는 데, 정작 알고 그 정신을 기려야 할 국경일이나 주요 기념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의 10%에도 못 미치며, 애국가 가사를 바르게 외우고 쓰는 학생이 2%도 안된다는 언론보도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의 상징과 국경일, 주요 기념일에 담긴 정신과 내용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자 계기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2. 무엇을?

우리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에 담긴 뜻을 알고 예를 갖추게 하고, 국경일과 국가 주요기념일, 명절과 절기, 지역행사 등에 담긴 정신을 일깨운다.

〈계기교육 일람표〉

국경일 및 기념일	명절 및 절기	지역행사
◇ 국경일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기념일 : 물의 날, 식목일, 4·19기념일, 과학의 날, 충무공탄신일,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현충일, 6·25사변일, 국군의 날, 독도의 날	◇ 명절 : 한식, 단오, 추석, 설 ◇ 절기 : 춘분, 청명, 입하, 하지, 소서, 입추, 추분, 입동, 동지, 대한,	고성 공동세계엑스포, 개교기념일

3. 어떻게?

가. 나라 상징 교육 강화

매월 학년별 애국가 가사 외워 쓰기, 국기에 대한 맹세 쓰기 평가를 실시하여 통과된 학생에게는 답입상을 시상하고, 100% 통과된 학년에는 학교장상과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이며, 하루에 한 번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를 실천하고 있다.

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계기교육

나라사랑 가치·덕목을 선정하고, 계기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연간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 활용하고 있다.

〈계기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표〉 (2)학년 (1)학기

교과	단원	차시	수업 주제	관련 계기행사	계기교육 지도영역	가치 덕목
즐생	1. 소리축제	1/9	• 삼일절 음악을 듣고 느낌 발표하기	삼일절	국경일	애국

〈계기교육 연간 지도계획표〉 (2)학년 (1)학기

월	주	덕목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장소	시수		시수
						교과	창체	
3	1	애국	삼일절	• 삼일절 음악을 듣고 느낌 발표하기	교실	즐생		1

다. SMART 계기교육 실천

IPTV와 e-BOOK 등을 활용하여 계기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라. ‘개천 꿈동이 나라사랑 생활본’ 제작 활용

나라의 상징과 학교 상징에 대한 내용, 계기교육 일람표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계기교육에 대한 선수학습, 학습과정 참여, 학습결과를 정리할 수 있으며, 현장 체험학습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이런 변화가?

가. 나라 상징 교육으로 애국가를 바르게 쓰고 부르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체계적인 계기교육으로 국경일 및 기념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다. ‘개천 꿈동이 나라사랑 생활본’ 활용으로 계기교육 실천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통일관 확립



유 승 규

창원 명곡여자중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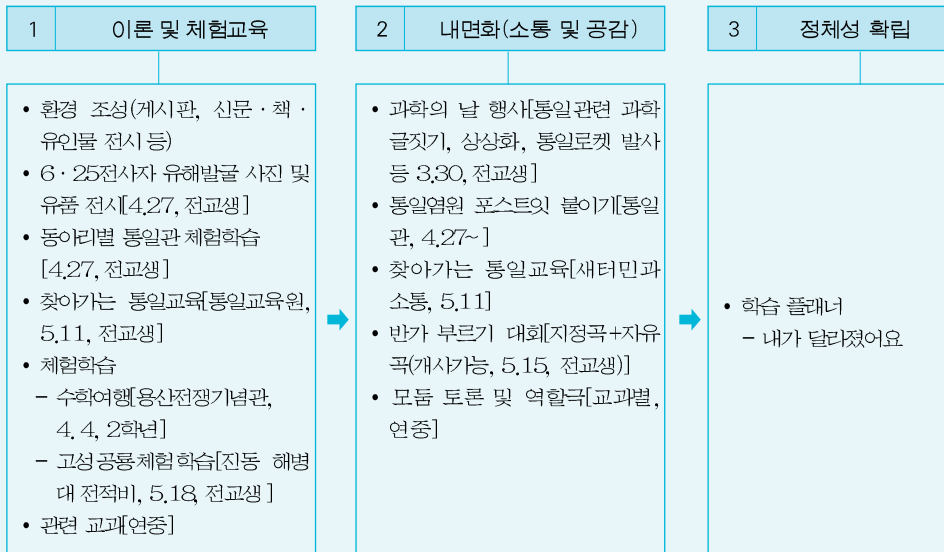
교육과정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근거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 38개 중의 한 영역으로, ‘진로교육, 성교육, 장애인 이해교육’처럼 강제 조항이 없으므로, 학교 실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실시하더라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교도 지난 해에 북한이탈주민 강사 초청 특강, 안보 관련 글짓기 등 일회성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과에서도 관련 단원과 연계하여 나름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지만, 학생들의 통일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갖고 있지만, 분단 현실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못살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통일교육은 학생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모듬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소통(공감)하는 학생 활동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운영의 목적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활동과 연계시켜 학생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체험교육을 적절하게 안배하며, 또한 시범학교 지정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여건을 만드는 데 있다. 흔히, 창의적인 독서의 단계를 말할 때,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는 단계,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하는 단계, 적게 읽고 많이 쓰는 단계’를 제시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여

올바른 통일관을 갖도록 ‘이론 및 체험교육→내면화(대화, 소통, 공감, 역할극 등)→정체성 확립(정리, 쓰기, 달라졌어요)’ 단계를 거치되, 통일교육이 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구조화〉



〈통일 노래부르기 반가 대회〉



매년 5월 둘째 주에 반가 부르기 대회를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통일 노래부르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정곡(휘파람 등 5곡 중 1곡 선택)과 자유곡(개사-통일염원)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학생들은 이미 이론 및 체험학습을 통해 얻은 통일의식을 바탕으로 1주일 동안 학급구성원끼리 치열한 내면화 과정을 거쳐 개사곡을 만들었다. 1학년 3반은 동방신기가 부른 ‘풍선’을 ‘~그 커다란 꿈은 많은 이들의 바람 / 통일 이제 이뤄질꺼야 / 하지만 우리들의 무관심에 늦어지고 있어 ~왜 지도를 보면 나는 눈물이 날까 / 한반도가 갈라졌잖아~’로 개사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과학적 글쓰기 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신장



김 점 중

남해 지족초등학교 교사

1. 과학 관련 다양한 학습 활동 전개

가. 수업 전 활동

동기유발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학습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통해 사고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짧은 시간에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없는 실험위주로 한다.

나. 수업 중 활동

단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실험 보고서 쓰기, 마인드맵 활동, 재미학습 전개, 박북 만들기 등을 통하여 모듈별로 토의를 통하여 정리를 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은 개인별 과제를 통하여 학습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다. 학습 정리 활동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전 골든벨, 스무고개, 마리오 게임, O·X 퀴즈, 스피드 퀴즈 등 사이언스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학습 활동을 정리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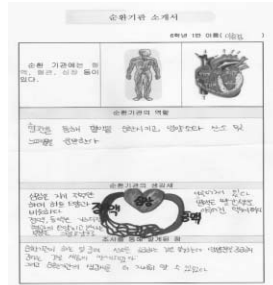
2. 창의력 쑥쑥! 과학 글쓰기

가. 만화 그리기

어려서부터 학습 만화를 많이 접해온 터라 그런지 과학 만화 그리기를 무척 흥미 있어 했으며, 학습한 내용을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만화로 잘 표현했다. 쉬는 시간까지 친구들이 그린 과학 만화를 돌려 읽느라 바쁜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과학적인 소재를 다루는 형식에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학생들은 크게 변화하고 발전되는 것 같았다.

나.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연상하고, 연상되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나열하도록 한다. 사고의 과정에서 사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하도록 하며, 아이디어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주고, 쓰기 표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다. 자기 소개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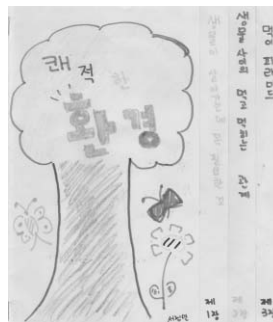
자기 자신이 어떤 대상이 되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여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조사 탐구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거나 교사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주고 그에 따라 중요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소개서를 작성하게 한다.

라. 광고하기

학습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활동으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습득한 개념이나 사실을 다양한 광고 형식으로 홍보해 보도록 한다.

마. 과학책 만들기

과학책 만들기 활동은 알게 된 용어, 사실, 더 알고 싶은 내용 등을 자기화하여 정리하는 활동으로 모든 학생들이 하는 활동보다는 심화활동으로 활용하면 좋다. 특히 심화활동의 주제가 만들기 활동일 경우 학생들의 능력 차이로 시간의 편차가 심할 때 활용한다. 수업시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정학습 과제로 제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도 좋다.



바. 1인 1주제 보고서 쓰기

교사가 미리 일방적으로 주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 해결을 위해 실험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험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보고서로 쓰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적절한 탐구 주제의 예시를 여러 개 들어주고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이 연 호

하동 악양중학교 교사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였다. 그러나 과거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던 방법만으로는 오늘날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없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한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티븐잡스와 빌게이츠와 같은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을 성취평가제로 바꾸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 틀림없다. 별도의 창의력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수업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통적인 방법인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강의식 수업 방법이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여건 또한 교사들에게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우선 학력향상이 중요한 만큼 교과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할 수 밖에 없고 복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이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각 단원에 맞는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학생들의 창의와 인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수업 방법은 많다.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방법 또한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사실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말발굽 모양으로 좌석이 형성되어 있는 교과교실, 수업시간 교재로 사용할 철학소설이나 이야기 자료가 있어야 하며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내외 정도가 적당하다. 토론의 연속성을 위해서 블록타임 형태로의 시간표 조절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느 한 가지 충분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이 좋은 수업 방법을 덮어 두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중등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중등은 초등과 달리 내용과 사고력 모두를 중시하는 수업이어야 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 학습의 전체 흐름은 가정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에서의 탐구 수업으로 나뉜다. 우선 ‘생각노트’를 만들어 가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활용해 본다. 즉 학습할 단원의 소단원 또는 중단원의 내용을 미리 공부해 오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습할 단원의 각 문단에 번호를 매기게 하고 문단별로 1~2문장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되도록 자신이 이해한 만큼 자신의 표현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모두 요약한 다음 결론에 해당하는 문단의 번호에 ◎표를 하고 그 근거나 이유에 해당되는 문단의 번호에 ○표 하도록 하여 단원의 내용 구조를 우선 파악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탐구 토론할 질문으로 만들도록 지도한다. 지식이나 개념에 관계되는 질문보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그런 후 자신이 만든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과 이유·근거, 그 이유에 대한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써 보도록 한다.

학급인원수가 25명 내외일 경우 5명 내외로 하나의 조를 편성하고 각자 자신이 과제학습으로 해 온 질문을 바탕으로 조별 질문을 만들도록 한 후 칠판에 적게 하여 손을 들어 하나의 질문을 선택하여 그 질문을 토론 주제로 삼고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 과정에 교사도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교사는 토론이 원래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토론의 방향을 유도해 주고 학생들이 토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즉 토론자의 일원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자신의 가치대로 토론을 이끌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토론이 끝나면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준다.

분명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은 적용하기에 쉬운 수업은 아니다. 그러나 창의력과 인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있는 수업 방법임에 틀림없다.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음중재 기법

- 짝자극 기법을 통한 조음정확도 개선 -



이 지 은

양산 삼성초등학교 교사

“편편님~~ 안녕하데요~” 하며 힘차게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 아이에게 “다시 이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또박또박 인사해보세요”하고 시키는 순간 아이는 긴장을 하고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특수교사로서 8년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이 부정확한 조음발음을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의 생활연령이 올라가면서 조음 교정을 위한 수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교육과정상 어려운 실정이며 치료 교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조음 수업은 언어치료사에게 맡기게 되었다. 하지만 언어치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도 제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30~40분 시간은 아동의 조음 교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수업시간 시작 10분 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음 중재 기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특수한 장비와 전문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종결이 비교적 빠른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짝자극 기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1. 짝자극 기법이란?

석동일(1995)이 개발한 기법으로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휘 목록을 그림 카드를 이용하여 단어와 문장 회화 수준으로 상황을 설정한다. 즉 자신의 어휘 목록 내에서 목표 음소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핵심 단어와 그 목표 음소가 들어가 있으며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는 훈련단어 10개를 짝을 지어 연습하는 것으로 핵심단어의 바른 발음을 전통적 자극제시와 모방연습 없이도 다른 훈련단어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Weston & Irwin, 1971).

2.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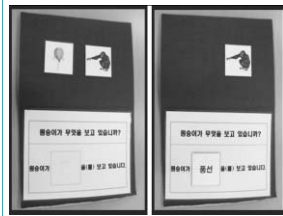
가. 대상 :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음이 있는 모든 연령의 아동

나. 준비물 : 그림 글자 단어 카드(양면), 문장 카드, 게임용 낱시 도구

다. 소요시간 : 10분 ~ 20분

라. 활동단계

단계	방법	활동 예시(활동사진)
1	아동이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음(오조음)이 무엇인지 검사도구를 통해 확인	조음 정확도는 U-TAP : 우리말 조음·음운 학습 평가(신문자, 김영태, 2002) 활용
2	정확하게 발음하는 단어(핵심단어) 찾기 - 아동이 오조음하는 음이 들어간 낱말 중에서 아동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낱말 한 가지 찾기	'ㅅ'음을 'ㄷ'으로 대체하여 발음하는 아동 : 'ㅅ'이 들어간 낱말 중에 유일하게 바르게 발음하는 단어- '사과'(핵심단어)를 찾는다.
유의점	만약 아동이 모든 단어를 부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동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단어 한 가지를 연습시킨다	
3 (단어)	단어 수준에서는 아동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단어(핵심단어) 한 가지와 아동이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10가지 단어(훈련단어) 짝짓기	(핵심단어) 사과-소, 사과-삼, 사과-새, 사과-사탕, 사과-수박, 사과-수건, 사과-사다리, 사과-손오공, 사과-선풍기
유의점	훈련단어 10개는 조음의 단어내 위치, 음절수, 결합모음, 종성받침의 여부를 고려하여 단어를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4 (문장)	핵심단어가 들어가는 질문형 문장과 훈련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미완성된 반응 문장으로 구성 (핵심단어-원숭이) (훈련단어-햇DOG, 버선, 도시락, 풍선, 버스, 눈사람, 토스트, 교실, 추석)	(질문형 문장) 원숭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반응형 문장) 원숭이가 □을 보고 있어요.
5 (회화)	낚시 놀이 환경을 제공 - 훈련단어 카드를 물고기 등에 이름표로 붙여 아동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만들어 준다.	(교사)무슨 물고기 잡을 건가요? (아동)버스 물고기 잡을 거예요



3. 기대효과

- 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훈련을 하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내적동기유발을 제공하여 지적장애 아동이라도 지겹지 않게 조음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 나. 전통적인 자극 방법과 한 단어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지겨워하지 않았다.
- 다. 단어-문장-회화로 순차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일상적인 생활로 일반화가 되었다.
- 라. 교사가 교실에 있는 단어카드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활용도가 높다.
- 마. 전문가적인 기술과 특수한 장비가 필요 없으며 언어치료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기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세상의 만남

김해내동초등학교

◆ 목적

본교(학교장 신용환)에서는 지난 201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주체의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꿈을 기르고 펼칠 수 있도록 '내동 樂 & Dream Festival'을 교육과정과 연계·기획하여 다양한 교육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樂 :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학교에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가득할 수 있게 함
- Dream : 아이들이 가진 꿈을 키움 + 우리말 '드림', 교육·재능·문화 기부를 통해 교육현장에 비전을 제시하는 김해 내동교육가족의 의지

◆ 추진현황

☆ 樂 & Dream Concert

- 지역유관기관의 공연기부와 본교 학생들의 공연으로 총 4차례 음악회를 개최하여 호응을 얻음
- 1회(김해인제대 오케스트라 '뮤즈'), 2회(경남국악관현악단 '휴'), 3회(가야누리, 김해환경합창단, 킬라몽키즈, 마술공연), 4회(댄스팀 '노아', 숙명가야금연주단)에 총 8곳과 연계하여 공연기부를 받음(네이버 뉴시스-05.08일자 외 8건 언론홍보)

☆ 樂 & Dream Cinema

- 학기중 방과 후 시간과 방학시간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 김해CGV 연계, 어린이날 기념 문화행사 실시하여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 내동 Edu-Network 구성 현황



- 구산종합사회복지관 : 희망나눔학교운영(1~3학년, 방학중)
- 김해문화의전당 외 20곳 : 지역 공연 소식지 발행(2011.4월~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산대 교육연구소 : 학력관련 연구기부
- 학부모 교육기부 활동 전개(봉사, 재능, 나눔 등)

- ◆ 이처럼 다양한 교육기부를 활용함으로써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진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자기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한 즐거운 토요 8色 테마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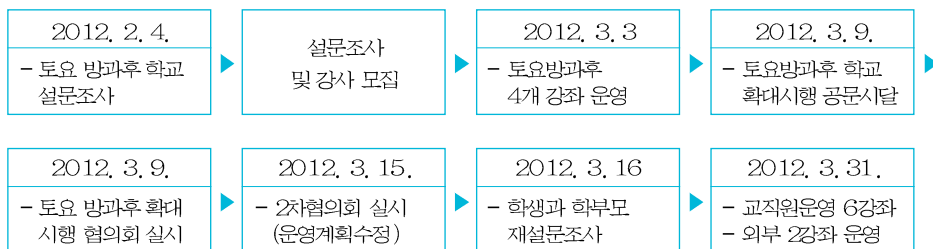
이 영 이

통영 충렬초등학교 교장

토요휴업일은 가족 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생활 능력배양 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느라 주중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토요일에 활용할 수 있어 토요체험학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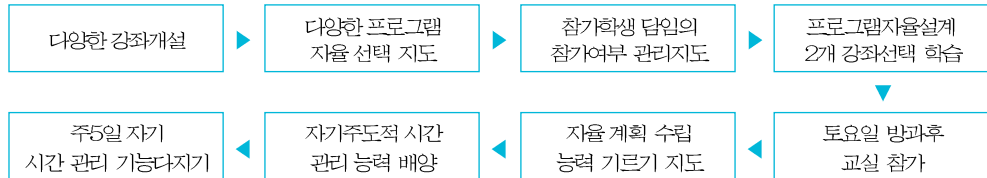
하지만 본교의 상황을 보면 가정에서 학생의 토요일 시간을 함께 활용해 줄 가정적 적다. 법률적 범위 바깥 경계선상 가정과 결손 가정(약 29.5%), 맞벌이 부모가 많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가정학습지도의 부재로 토요일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별한 활동 없이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 학교 자체 토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우수한 강사 초빙은 작은 학교의 특성상 섭외가 어려운데다,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가 부족한 상태를 교사들이 잘 알고 있어 교사 전체가 참가, 학생의 자기관리능력을 기르고 관리하는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하기로 결정하였다.

〈토요방과후 프로그램의 추진과정〉



교과부의 토요방과후학교 예산지원으로 교직원의 특기와 소질을 살린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의 소질·적성개발과 즐거운 시간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돌봄의 여건을 조성·제공하여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족하는 토요 프로그램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생 지도 과정〉



개설된 강좌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4시간의 긴 프로그램이 지루할 수 있으므로 2시간 강좌를 2개 선택하여 수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8개의 강좌를 개설, 학생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계획·운영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전교생의 50%가 넘는 학생 참여로 토요방과후학교가 운영되었으나, 차츰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정학습 참여가 늘어 토요 방과후교실 참가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이에 참여가 줄어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토요일 자기 시간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편성 시간표〉

시간	본교 운영 프로그램							외부지원
0900~1030 (1~2교시)	독서놀이 (저학년 교실)	EQ쑥쑥음악 (저학년 교실)	과학교실 (고학년 교실)	스포츠 (고학년 교실)	점핑클레이 (외부강사)	자격증대비 컴퓨터교실 (외부강사)	돌봄 (전학년)	창작도에 1000~ 12:10
1000~1210 (3~4교시)	독서놀이 (고학년 교실)	EQ쑥쑥음악 (고학년 교실)	과학교실 (저학년 교실)	스포츠 (저학년 교실)				

그 중 통영교육지원청 지정 토요프로그램인 ‘토요 창작 도예교실’은 도자기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호응이 아주 높아 계획인원의 1.5배수를 수용하여 수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총령초등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직원은 학생의 자기시간 관리의 능력 배양과 즐거움, 유익함에 교육적 사명감과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로 만족도가 높아서 가정체험학습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토요일이면 자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신나고 힘차게! 알찬 꿈이 자라는 Happy School 만들기



제 영 만

김해 월산중학교 교장

우리학교의 아침 등굣길은 음악이 흐르는 운동장을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함께 걷는 정다운 길입니다. 또 신간으로 구성된 학급문고를 활용한 아침독서는 책 속에서 꿈을 찾고 희망을 디자인하는 우리학교의 특색활동입니다.

본교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와 예의바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교육에 높은 관심으로 믿음을 주는 학부모님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펼치는 학교입니다. 우리학교는 경남교육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특색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노래가 흐르는 Happy School 만들기

월산코러스(WSC)와 월산리코더앙상블의 연주활동, 싱가포르 탐피니스(Tampines) 중학교 합창단(36명)의 본교 방문으로 이루어진 합창 합동공연 및 합동 수업실시, 잠재된 음악적 소질을 계발하는 학년별 합창 경연대회,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내음악방송을 운영함으로써 음악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다함께 노래하는 학교의 실천으로, 심성이 순화되고 미적경험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본교 합창부인 월산코러스(WSC)는 시범연주 8회, 각종대회 참가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서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선음악회 등 재능기부를 통해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2TV '더 하모니' 방송 장면



한-싱가포르 합창 협연



교내 합창제(1학년)



자선음악회 참가(1교1복지시설)

2.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월산인 양성

‘환경사랑 힘찬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불어 함께 경쟁하며 우정을 나누는 교내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운영으로 체력을 증진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학교 체육 활동으로 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초운동능력과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본교 카누부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금1, 은3, 동4개를 수상하였습니다.



심폐지구력 강화



창작댄스 대회



건강 상담 부스



월산 카누부

3. 달미 독서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사고력 기르기

아침 20분 독서운동, 학급문고 운영, 독서릴레이 활동, 독서기록장 제작 및 활용 등 ‘무한도전 2012 운영’으로 자율적 독서습관이 형성되었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독서 축제 등 도서관 행사와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교사의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방과후 독서논술반 및 토요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책찬들 꿈키우미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학교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낭송 축제, 하동 문학기행, 작가초청강연회, 김해의 책 릴레이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지역사회의 독서문화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침 독서



학부모독서 동아리(책찬들맘)



시낭송 대회



하동 문학기행

배영어린이 'Dream-Up' 프로젝트를 위한 교육기부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한 용 희

진주 배영초등학교 교감

본교에서는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어린이들의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력과 올바른 인성을 함께 갖춘 어린이를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 기부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기부 기관과 학교에서 발굴한 재능 기부 자원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동아리 활동은 자기 계발과 능동적인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1. 아름다운 기부, 배영어린이의 꿈이 영글다

사회적 기부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기부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진주박물관의 교육 기부로 이루어진 '왕실의 보물' 특별전 관람과 박물관 체험활동은 어린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인의 정체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 6월로 예정된 아름다운 가게의 교육 기부를 받게되는 '아름다운 교육, 나눔 세상 - 아름다운 하루' 및 사랑의 바자회 운영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기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부 문화의 생활화와 자긍심 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교에서 추진할 교육 기부 13가지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교육기부를 통한 꿈 키움 프로그램

순	교육기부 기관	프로그램명	대 상
1	KBS진주방송국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1~2학년
2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교육, 나눔 세상 - 아름다운 하루	3학년
3	국립진주박물관	왕실의 보물 특별전 - 역사 체험	4학년
4	고성공룡엑스포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	2학년
5	진주YWCA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 씽크머니	6학년
6	공군교육사령부	미리 가보는 병영 체험	80명 내외
7	여수세계박람회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배려학생 40명

01 진주박물관 교육기부 활동

8	진주시야구협회	반갑다, 야구야. 나도 국가대표!	야구동아리
9	진주의사협회	아토피 클리닉	희망 학생
10	무림페이퍼(주)	녹색 환경 교육, 현장을 찾아서	5학년
11	진주지방법원	판사님과 만남, 법률과 생활	6학년
12	진주세무서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	5학년
13	진주시독육아원	친구야, 함께 어울리자.	전교어린이회

2. 예능 동아리의 쾌거,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대상 수상

어린이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소질 계발과 진로의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예능 동아리는 방송, 합창, 관악부 등 8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 방송동아리 소리샘의 활동은 자랑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다름 아닌 2012년 경찰청 주관 ‘폭력없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에서 초등 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5월 14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청장으로부터 상장과 부상 100만원을 받았다. 방송부 선후배 간의 따돌림을 주제로 다룬 UCC는 일상적인 교우관계의 갈등을 편안하고 유머있게 구성하였다. 이 UCC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폭력 예방 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5월 14일자 KBS 9시 뉴스에 UCC가 소개되어 경남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3. 교육 기부와 연계한 스포츠 동아리 운영

어린이들에게 삶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구, 탁구, 배구, 씨름, 비만클리닉 동아리는 지역 사회의 재능 기부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토요 스포츠데이로 운영하는 등산 동아리와 음악 줄넘기 동아리는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인기 동아리이다. 진주 사랑 등산동아리 ‘메아리’는 월 1회 운영하고 있는데 석갑산과 광제산 산행을 이미 다녀왔으며 10월에는 지리산 천왕봉 등반에 도전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02



02 경찰청 UCC 대상 수상



4. 창의력과 영재성 계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

과학동아리와 영어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과학동아리의 활동 성과는 우리교육지원청 과학탐구대회 과학그림 대상, 전자과학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5~6학년 어린이들로 구성된 영어 동아리는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5. 에필로그, 교육기부 그 아름다운 동행

오늘날 우리 학교는 인간성 회복과 개인의 존엄성을 살리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교는 그 길을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다양한 방과후 동아리 활동에서 찾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 추진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자기 계발, 창의성 함양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전인 교육의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한다.



해양 하모니 교육을 통한 7가지 좋은 습관 형성 100일 작전



김 병 련

남해 해양초등학교 교장

1. 습관은 일생을 만든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에 잘못 형성된 습관은 평생 동안 고치기 못하는 경우가 많고,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된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목표인 ‘지(知), 덕(德), 체(體), 기(技)’ 4-UP 해양 하모니 교육과 연계하여 건강하고 바른 심성과 슬기를 갖춘 미래사회의 인재,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7가지 좋은 습관 형성 100일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2. 7가지 좋은 습관 형성 100일 작전 개시

본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좋은 습관은 책 읽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반복 학습하는 습관, 자기 관리하는 습관, 긍정적인 사고 습관, 인사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이다. 학기초부터 7가지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해양 하모니 학습장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실천 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월별로 확인하고 있다. 100일이 되는 6월 11일에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힌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분야별로 습관 으뜸이를 시상할 계획이다.

가. 작전명 1 : 책 읽는 습관 형성

독서하는 습관 형성을 위해 매일 20분씩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사제동행 및 부모님과 함께 책읽기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책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신입생에게 책 선물하기, 학생, 학부모, 교사 독서 서약식 추진, 전답사서 배치, 주1회 도서관 활용 수업, 월1회 독서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책읽기 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화요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어 주는 Mom’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1



02



01 반복 학습하는 습관 형성

02 봉사하는 습관 형성

나. 작전명 2 : 운동하는 습관 형성

하루 30분 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운동 습관을 형성시켜 저체력 학생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해양어린이를 기르고자 하였다. 움직임을 싫어하는 학생에게 체육활동을 강요하면 오히려 체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든다는 생각에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음악과 함께 하는 아침건강달리기 실시, 건강증진실 운영,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스포츠클럽 조직, 토요스포츠교실 운영 등을 중점으로 하여 체육활동에 신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다. 작전명 3 : 반복 학습하는 습관 형성

학습의 목표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배운것을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익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습이기 때문에 매일 쓰는 ‘복습일기’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였다.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제작 배부한 복습일기 책자는 ‘쉬는 시간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총 4번 복습하는 쉽고 간단한 복습법을 몸에 익혀 학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 작전명 4 : 자기 관리하는 습관 형성

자기 관리란 삶의 기본인 동시에 행동 및 습관 등을 결정짓는 요소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해양 하모니 학습장’ 생활본 활용을 통해 자기 관리 습관을 기르도록 하였다. 해양 하모니 학습장은 꿈, 지, 덕, 체, 기 5장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자기비전 관리, 자기시간 관리, 자기생활 관리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꾸준히 도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04



마. 작전명 5 : 긍정적인 사고 습관 형성

어린 시절에 건전한 자아상과 높은 자존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자존감을 높이도록 매일 아침 학급 조회 시 긍정문 외치기, 이름표 달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매일 3회 이상 학생 이름 불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 작전명 6 : 인사하는 습관 형성

인사는 많은 예절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과 더불어 명랑한 생활을 보내고 즐거운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사 방법을 익히

03 운동하는 습관 형성

04 이름표 달기를 통한 긍정적인 사고 습관 형성

게 하였다. 특히 ‘해양학당’ 예절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갈고 닦아 효와 예를 실천하는 사자소학의 내용을 습관화하고 한복 입는 법, 큰절하는 법, 다도교육 등 예절 생활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작전명 7 : 봉사하는 습관 형성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보다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가슴 속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1일 1선을 실천하게 하였다. 또한 매주 교내에서의 수요봉사활동, 교외에서의 스카우트, 녹색환경봉사단 등 청소년단체 봉사활동, 본교의 특수재택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소망의 집에 매월 전개되고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3. 습관이라는 열매 수확을 위하여

‘좋은 옷은 나를 하루 빛나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나를 평생 빛나게 한다.’는 말처럼 해양어린이들이 좋은 습관을 착실히 쌓아 자신의 소중한 꿈을 가꾸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양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배우는 기쁨,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05



06



07



- 05 학생 및 학부모 독서 서약식
- 06 재능 기부 복지시설 봉사활동
- 08 해양 학당 활용 예절 익히기

인성기반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으로 나눔과 배려하는 마음 기르기



정 유 진

창원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학교는 사이버교육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실험 및 체험 중심의 교육을, 그리고 인성 및 가치관 교육과 관련된 팀워크 공동체 생활 위주의 커뮤니티 활동을 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롬글랜(UN미래포럼 의장)-

UN미래포럼 의장인 제롬글랜은 글로벌 인재포럼에서 미래사회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식과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래사회에서는 지식의 활용능력, 다른 이와의 대화 능력 등을 통한 문제해결력, 그리고 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능력, 즉 창의력 등을 핵심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학교 교육에서 1960년대부터 과목을 4~8개로 대폭 줄이고, 학교와 대입시험에서 창의력과 논리력 테스트를 중시하고 있으며, 1990년에 중·고등학교 시험장에 계산기를, 2000년에는 PDA를 활용한 인터넷 서치를 허용했다.

1인 평균수명 100세 시대, 1인 평생 수십 종의 직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은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 시스템인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교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평생을 일과 여가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 하는 학생을 기르고자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5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2차시를 동아리 활동으로 배정하였다. 학생의 취미, 흥미, 적성, 요구를 반영하여

9개의 동아리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동아리 체험을 통해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으로 동아리 활용 내용을 연구 개발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적인 인재로 키우고자 한다.

2. 인성/창의 요소별 동아리 운영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이므로 아직 자신의 흥미나 소질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였기에 9개의 동아리를 구성하고 아동들은 매달 다른 동아리 활동 내용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내용을 경험하여 자신의 소질 및 흥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했으며 아동 중심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요소의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인성요소 창의성요소	동아리명	주요활동내용
협동심 자율성, 민첩성	통통통! 뉴스포츠	다양한 신체 운동을 통해 미션을 해결하고 친구들과 협동심 기르기
생명 존중 감수성, 호기심	자연에서 배워요! 생태체험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고 우리 반 식물 재배하기
의사 결정 능력 수렴적 사고	책 속의 보물찾기	다중지능 그림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림책 속 인물 상상하기, 이어지는 내용 상상하기, 표정 그리기 등의 다양한 선택 활동하기
배려, 존중 개방성	세계 속으로! 문화 속으로!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 이해하기
책임 확산적 사고	덩덕쿵덕! 사물놀이	사물 악기를 알아보고 재미있는 구음을 익혀 ‘별달리기’ 연주하기
약속 몰입, 호기심	그림책 속 미술과 놀아요!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림책 기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기
도덕적 판단력 상상력, 민감성	보글보글 ~ 요리교실	과자, 과일, 초콜릿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만의 표현놀이하기
행동 실천력 시각화, 유창성	Making Idea Art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나만의 책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기
정직 문제 해결	창의력 쑥쑥! 수학놀이	다양한 수학 교구를 이용하여 수학과 친해지고 재미있는 수학의 원리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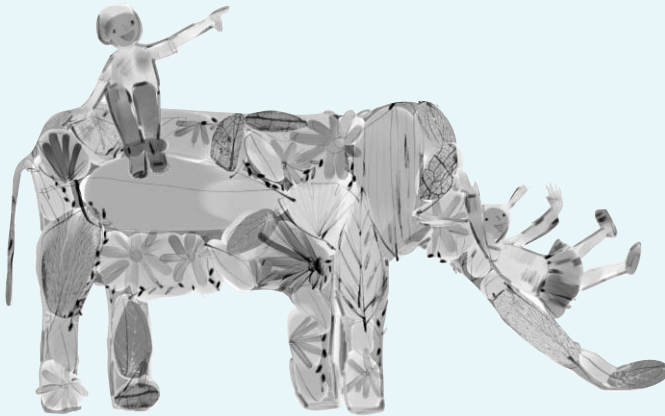
3. 프로젝트 수업 방안

한 동아리 활동을 2차시의 수업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사전, 사후 활동은 교과와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아리별 담당 교사는 관련 교과와 단원을 분석하고 프로젝트형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사전 활동은 각 반에서 지도하고 동아리 활동 시간에 주요 활동을 운영한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와 통합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연구 개발된 수업 모델은 동학년 교사가 함께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들은 다양한 동아리 체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이나 소질, 흥미가 있는 분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주도의 활동이 아닌 학생 위주의 활동,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존감, 창의성, 인성, 협동심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학생 순환 동아리 체험형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은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과 지식 위주의 활동이 아닌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 시간을 무척 기대했다. 또한 생태체험부, 뉴스포츠부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 고장 및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아닌 이웃, 동물과 식물 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습지와 프로그램 등은 많은 교사가 공유하여 일반화할 수 있었으며 타학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4. 맺으며

동아리 체험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생활에 적응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하였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는 곳이 아닌 아이들의 다양한 창의성 발현의 창이 되어주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 마을과 고장에 관심을 길러주는 장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체험형

수업을 통해 학습 흥미도와 사고력을 높이고, 협동심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우리 요리 활동 언제 해요?”, “선생님, 나는 수학 놀이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가 너무 잘 자라요. 다음에는 고추도 심어 봐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교사로서 보람도 있었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공교육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교육의 해답을 사교육에서 찾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인재 육성은 학교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통해 진정한 학교의 역할을 찾을 수 있었다.



환경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금서교육



오 상 진

산청 금서초등학교 교사



1. 시작하며

본교는 동의보감과 약초의 고장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지리산 둘레길 5코스(동강~수철), 산청 한의학 박물관이 위치한 동의보감촌과 인접하고 있다.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이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교는 고장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체력을 길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지정 친환경교육 연구학교를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건강 프로젝트를 더하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친환경교육과 운동하는 학교

가. 친환경교육 실천

1) 환경 정화의 날 운영

청소 용역으로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해야하는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 청결에 대한 태도가 정착되지 않아 매월 1회 첫째 금요일 6교시에 '환경 정화의 날'을 운영하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소가 어려웠던 교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복도, 학교 운동장과 약초 동산, 대나무 숲 등에 학년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환경 정화의 날을 운영한 결과, 주변 정리정돈을 잘 하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친환경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다.

2) 생활 속 친환경운동 실천

평소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였다. 각종 행사 및 체험학습시 항상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가게 하였으며 일회

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도시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 결과 잘 실천하게 되었다.

3) 1인 1약초 가꾸기

‘우리 고장 약초 50가지 익히기’라는 본교 특색교육활동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 고장 약초의 우수함을 알리고 학생들의 고운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 금서 약초동산에 조성되어 있는 약초와 1인 1약초 자매결연을 맺어 약초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직접 가꾸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나. 전교생 들길 달리기

본교의 주변 환경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더 없이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학교 주변에는 엄청난 강을 끼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길이 있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중간체육 시간에 전교생이 함께하는 들길 달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처음에는 개인별 수준별 달리기를 진행했는데 지속적인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체력이 향상되고 달리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지리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들길을 달리다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 주저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학생들도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의지력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맛보고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점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찾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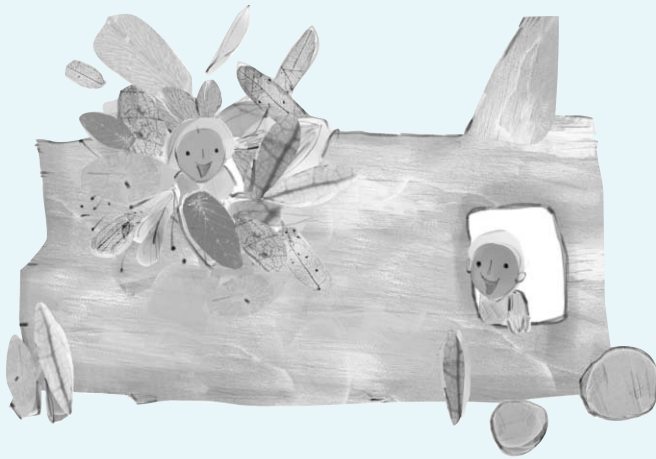
다. 왕산자락에 울려 퍼지는 작은 학교들의 큰 함성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건강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지난 5월 11일 본교 운동장과 왕산에서 생비량초등학교와 자매결연학교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양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지역 주민,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제 행사로서 오전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자매결연학교 증서를 교환하였으며 달리기, 줄넘기, 즐거운 놀이마당,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인근에 있는 왕산을 등반하면서 구형왕릉, 류의태 약수터, 망경대 등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견학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양 학교의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전교생이 20명도 되지 않는 농촌 소규모학교로서 협력 활동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3. 맺으며

전교생 20명이 되지 않는 농촌 소규모학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금서교육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만족하게 되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실 붕괴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연극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안 병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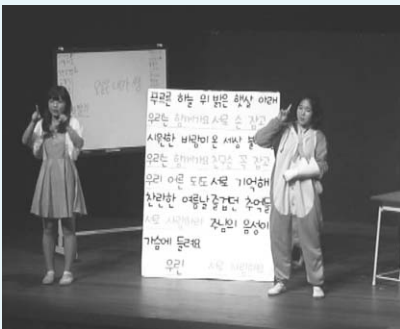
함양여자중학교 교사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학생들에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또한 부족한 편입니다. 아직도 학교와 사회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감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로 인해 장애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은 학교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님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해 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커피와 비스킷(함양여자중학교 연극반)에서는 2010년부터 장애인식개선 연극반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연극을 무료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연극반 활동을 통해 교육연극 활동에 참여하여, 재미있는 연극 만들기과 연극 놀이 등에 참여를 합니다. 연기, 무대작업, 음향, 조명작업 등의 연습을 통해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함양학생공연장에서 주체적으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의 생산자가 되어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극 공연을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극 하나. 커피와 비스킷



커피와 비스킷

다수의 장애학생들과 한 명의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서로에 대한 차이와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내용

〈지체장애,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화노래를 배우는 장면〉

연극 둘. 첫눈아 기다려



첫눈아 기다려

뇌병변장애 3급 여학생의 첫사랑을 이루어 주기 위해 친구들이 힘을 모아 도와 주며, 장애학생의 '사랑'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

〈친구들이 뇌병변장애 친구를 위해 함께 춤을 추는 장면〉

연극 셋. 별을 닮은 아이



별을 닮은 아이

지적장애 2급 언니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장애 여동생의 삶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

〈지적장애 2급 언니와 함께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떨리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기 위해, 학생들은 몇 달 동안이나 수없이 연습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주말과 늦은 밤까지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연극을 한다고 하여 주위에서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은 연극반 활동을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관리를 하고, 공부계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연극을 통해 연극반 참여 학생들은 조금 느린 친구가 있으면 기다려 주고, 조금 서툰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배려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고 다른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면, 옆에 가서 살며시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나아가 교육연극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 청소년 시절에 바람직한 진로·직업 가치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웃음을 선물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학생들은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지성, 인성, 감성교육의 삼박자 속에 울려 퍼지는 금벌의 메아리



이 혜 란

김해여자중학교 교장

들어가며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김해여자중학교는 지난 56년간 배출한 졸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공경(恭敬), 정결(貞潔), 봉사(奉仕)를 교훈으로 ‘울곧은 인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한국 여성교육의 산실로서 모자람이 없는 최고의 여자중학교를 만드는 데 모든 교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해여자중학교는 경상남도 특색교육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독서하는 학교’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다. 이제 김해의 명품중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김해여자중학교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아침마다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학교

김해여중의 아침은 아펠리아 합창단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시작된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전교에서 선발한 아펠리아 합창단은 2011년 김해시 중학생 종합 학예발표대회 합창부분 우수상, 2011년 8월 제47회 경남중등학생 종합학예발표 대회 합창부분 우수상, 2011년 10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은상 수상, 2011년 11월 제1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학생 합창대회 본선 진출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2. 하키부만 하키한다구요?

김해여중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심성이 자란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하키부와 함께하는 유산소운동 및 하키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김해여중 하키부는 전국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지난 4월 열린 ‘2012 KBS배 전국춘계 남녀하키대회’와 ‘제 31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대회’에서 우승하며 하키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올해로 창단 30년째를 맞는 하키부가 7년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오른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값진 것이다.

3. 반별로 떠나요!

다른 학교와 달리 김해여중에는 수련회 행사가 없다. 대신 교사와 학생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반별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3학년은 부산 누리마루, 창원 도립미술관, 대구 허브힐즈, 김해 국립박물관 등으로, 1학년은 어촌 체험마을, 하동 금와목장, 양산 치즈밸리 등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김해여중의 현장체험 학습은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 별로 체험학습 장소를 계획하고 선정하여 인성 및 단합,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반별 현장체험 학습이 학교 내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이나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학생들이 그 동안 속에 담아 두었던 문제들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이야기했으며, 담임교사와 인성부 그리고 학생들의 협조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4. 꿈을 키우는 ‘동아리DAY’

김해여중 학생들이 한 달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동아리DAY’이다. 동아리DAY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동아리의 특색에 맞는 활동 내용을 정하여 전일제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는 요리부, 등산부, 사진부, 소프트볼, 아이스링크 등 무려 27개 동아리로 전 교사와 학생들이 1인 1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동아리는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하고 꿈을 키우는 동시에 가을에 있을 동아리 발표회 준비로 여념이 없다.

나가며

지금까지 김해여자중학교의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인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의 삼박자를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전 교직원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영어공부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교육원 원장

1. 들어가며

스마트폰 보급 300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컴퓨터보다 더 손쉽게 항상 소셜미디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으니, 천리마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닌가 한다. 이제 그 천리마를 타기 위한 방법인 소셜 미디어를 배우고, 그를 통한 영어공부 방법을 고찰해 보자.

가. 트위터의 활용

영문으로 아는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 외국으로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재외공관에 근무했던 공무원, 회사의 해외파견 주재원, 여행하면서 알게 된 외국인친구들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트위터로 영어공부를 하려면 우선 외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정치가, 뉴스 채널, 신문사 등을 팔로잉해서 교류해야 하고, 국내에도 영어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팔로잉해야 한다. 문제는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갖추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선뜻 영어로 외국인과 트윗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140자 이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문으로 시작하되 어휘는 꾸준히 습득해 나가야 영어실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작성해 보고 트윗하는 다른 사람들의 문장을 보고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듣고 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어휘와 단문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구어적 문체를 많이 접하게 되어 영어회화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다.

더욱이 제한된 사람과 제한된 시간에만 가능했던 이 인터넷상의 서신교환은 이제는 트위터라는 인터넷상의 공개된 가상공간에서 이러한 제한 없이 무한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

게 되었고 이메일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세계의 도처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메일은 긴 문장으로 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보를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트위터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팔로잉하거나 본인을 팔로우 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터넷상의 대자보 역할을 한다. 한편, 이메일이 메시지를 보낸 소수의 상대방으로부터만 회신을 받는다면, 트위터는 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내의 영어뉴스나 영자신문, 세계의 유명 방송국, 신문사 등에 팔로잉해 놓으면, 매일 매일의 세계적 뉴스와 시사영어를 동시에 손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유명 배우나 가수, 정치인, 문화가, 예술가 등의 트위터를 팔로잉하면 그들의 근황을 영어로 볼 수 있으니 좋은 영어교재가 아닐까 한다. 또, 운이 좋으면 자신이 올린 트윗 글에 대해 회신이 올 수도 있으니 나쁠 것 없다고 본다. 단, 기본적인 영어실력은 미리 갖춰야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페이스북의 활용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소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소통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가 될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지인의 취업소식에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는 이야기를 캡처해서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또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친구를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 정치가, 예술인, 문화가, 스포츠 스타, 방송, 신문사, 종교인 등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친구를 신청해 놓으면 된다. 세계인들과 세계의 뉴스에 대해서 짚막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올라온 동영상이나 사진도 흥미있는 교재가 된다. 뉴스의 경우, 우선 동영상을 보면서 들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청각 교육도 된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동영상이나 Link를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 담벼락에 쓸 수 있는 글자수는 420자로 트위터에 비해 많은 여유가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얼굴 사진과 프로필을 볼 수 있고, 대화하듯 하기 때문에 회화적인 표현이 많이 쓰이므로, 영어 회화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3. 유튜브 활용

가장 많고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영어학습활동에 활용도가 높다. 본인이 유튜브에 자신의 동영상을 올려 놓을 수도 있지만, 구글이나 유튜브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 영어학습 목적의 동영상을 보려면, Teach English, Learn English, English Expressions, English Idioms, 등 필요한 분야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쳐서 유튜브로 Search하면 수많은 관련 동영상이 뜬다. 이것으로 공부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어공부법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어 학습요령을 자기 나라사람들을 위해 올려 놓는가 하면, 한 영국소녀는 영국식 발음의 읽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올려 놓았다. 그런가 하면, 전문외국인 영어강사가 나와 고급의 생활영어표현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따른 영어표현, 단어공부, 속어, 영어 어떻게 하면 잘 하나 등 그야말로 백화점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외국인 강사가 나오는 경우 동영상 시범 후에 유로사이트로 권하는 경우가 많으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며, 현재 나와 있는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영어학습이 가능하다. 장점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서 발음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지, 영어로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뉴스방송인 CNN이나 BBC 방송에 올라온 뉴스 동영상과 영화나 팝송, 드라마, 성경 등도 활용해 볼만하다.



4. 나오며

소셜미디어 상호간의 연계에 의한 정보의 통합 및 공유로 인해 어느 한 곳만 링크해도 자동으로 정보가 뜨게 되는 시대에 와 있다. 또, 스마트폰에 모바일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과 같이 전자통신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뭐든지 빠르게 돌아가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도, 영어공부에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다.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히 시간투자를 해서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애플사의 (고) 스티브잡스가 '위대한 일을 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강조했듯이 소셜미디어와 영어공부도 좋아서 하기 바란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영어와 소셜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소통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꿈을 펼칠 수 있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영어공부'가 여러분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아직 새내기 교사랍니다



손 경 혜

창원 반동초등학교 교사

2011년 2월1일 아침 10시.

긴장감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졸깃해진 심장을 부여잡고 확인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는 합격! ‘와아악!’ 하며 수험생인 팔로 인해 1년간 마음고생하신 부모님과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던 그때가 벌써 1년 하 고도 3개월이 지났다. 이제 막 신규라는 꼬리표를 떼고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많고 어려운 것 투성이인 골칫덩이 새내기 교사이다.

2011년 3월 2일, 내 생의 첫 제자들을 만났다. 전날 밤 아이들과 어떤 말을 나누어야 할 지, 어떤 표정으로 아이들과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다. 첫 제자들, 5학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순박하고 해맑았다. 그리고 30명 이상의 학생들로 뻗뻗한 교실의 풍경과는 다르게 큰 교실에 7명 밖에 없어 조금은 쓸렁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렇게 첫인사를 하고 이 아이들과 값진 1년을 보내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반짝거리는 토끼눈을 하고 집중할 때면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다. 한편으론 아이들의 기대만큼 준비를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으나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수많은 공문과 일 처리였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공문 접수부터 시작해서 날짜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 공문 쓰는 법까지, 특히 공문 제출 날이면 혼자 안절부절 못해서 옆 학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 같이 공문을 쓰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어떤 날엔 옆 학년 선생님을 부르기 죄송스러워서 나 혼자 공문을 써보려 하였으나 수신자에 ‘창원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를 찾지 못해 30분 이상을 헤매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고 2012년 새해가 되었다. 나의 첫 제자들은 6학년이 되었고 나는 어여쁜 4학년 아기들과 새로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두 학년 차이지만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작년 아이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아직은 아기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며 답답으로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작년 제자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애교가 넘치는 아이들 덕에 무뎡뎡한 내 성격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한 해를 정신없이 보내게 될 것이다.

작년에는 여느 모임에 갈 때마다 선생님이라고 밝히면 “어머! 선생님이시구나” 하는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본의 아니게 대학생이라 속일 때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길거리를 가다 “ 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라 선생님들의 전출입이 잦은 편이다. 한 해 동안 동고동락 했던 세 분의 선생님을 보내고, 올해는 신규 교사 2명이 반동에 첫 발을 내딛었다. 신규선생님들을 보고 있으면 작년의 내 모습이 생각나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작년의 나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일처리나 학급경영을 하는 것을 보면 신규교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울 때도 많다. 앞으로 교사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첫 부임 했을 때 나의 다짐과 예비교사 시절 내가 설정해 놓았던 이상향을 잊지 않고 노력해갈 것이다. 2년차에 접어들며 이제야 학교의 사정과 업무가 조금씩 파악되는 것 같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아직도 새내기 교사라는 것! 무엇이든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한발짝 한발짝 성장해 가는 내가 되리라 믿는다.



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 인생을 걸어 도와 줄 것이다



임 희 정

창원 대산초등학교 학부모

‘속이 튼튼한 사람은 내실을 기하는 사람이다. 걷은 화려하지 않고 먹는 것도 소박하지만, 머리는 지혜로 가득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중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동지들, 내 새끼들아,

너희들이랑 이 세상을 함께 살며 많은 것들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싶다. 엄마는,

지금까지 우리 서로 잘해 나가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지내고 싶구나.

오늘은 엄마가 읽던 책에서 너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글 한 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

난 너희들이 이런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내 남은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도와줄 것이다. 최고로 쉬운 일이면서 최고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평정심을 가진다는 것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하면서도 흔들리는 때가 너무 많으니, 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습관처럼 몸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나는 매일 기도하며 매일 너희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다. 매일 발맞추어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이자 이루어야 할 꿈이다.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한 꿈을 꾸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너희들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손을 잡아 주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짐한다.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며 너희들을 그 무엇보다 즐겁고 신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수 있게 매일 기도한다.

너희와 나는 많은 꿈을 꾸며, 실천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힘이 들어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좌절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며,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나 질타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손을 잡아주는 너희와 나.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동지가 있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와 나의 의논과 결정대로 밀고 나갈 힘을 항상 비축해 둘 것이다.

나의 말이 아직은 너무 어렵고 너희에게 와 닿지는 않아도 너희가 속이 튼튼한 사람이 된다는 걸 행복이라 여길 때 나의 맘이 너희에게 전해진다면 좋겠다. 아니, 너희가 어른이라는 것이 되었을 때 지혜로 가득 찬 머리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자꾸나.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물론, 힘이 들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너희를 야단칠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웃고 있으니 난 행복한 걸거다. 나의 행복이 너희에게 전해져 너희도 행복했으면, 더 나아가 나와 너희의 주위가 행복이라는 파스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또 편지하마…….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여름을 알리는 비가 토닥토닥 내리는 밤 엄마가 보낸다.





지리산 외할머니



김 동 군

창원 성호초등학교 6학년

택배 아저씨가 전해준 상자 속에
지리산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말린 취나물과 고사리

엄마는 나물 냄새 맡으시며
눈을 비비신다.
“어데서 이리 매운 내가 나지?”
아무 데서도 매운 냄새가 안 나는데
엄마는 맵다고 하신다.
외할머니 생각에 눈이 매우신가보다.

지리산 외할머니는
막내딸인 우리 엄마를 제일로 좋아하신다.
설날에 갔을 때도
“고들빼기 묵어라, 무말랭이 묵어 봐라”
엄마를 아기처럼 챙기셨다.

온 집안에 지리산 외할머니 냄새가 난다.
거북이 손 같은 외할머니 거친 손 냄새도 나고
외할머니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 냄새도 난다.

온 집안에 지리산 냄새도 난다.
취나물에 팔려 온 지리산 햇살 냄새도 나고
고사리에 팔려 온 지리산 흙냄새도 난다.

저녁엔
참기름에 볶아진 지리산을 맛보겠지.

저녁엔
지리산 외할머니 얘기로 고소해지겠다.



- 제9회 시 예술제 장원(2012. 5.) -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박 명 환

경남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

세계의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석유재벌 데이비드 록펠러, 투자계 대부 조지 소로스, 미국 경제 대통령 앨런 그리스핀, 영국 명문 첼시 구단주·석유재벌 아브라모비치, 던킨 도너츠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그,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숄츠, 베스킨라빈스 창업자 어버인 라빈스, MS 공동 창업자 스티버 발머,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래리 페이지, 미국 최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 풀리처상을 만든 조셉 풀리처, 신을 빼고 모두 인터뷰한다는 CNN 래리 킹,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톤, 전설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배우 채플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대인이 없었다면 현대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장담한다.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현대과학의 선구자 아인슈타인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들 역시 모두 유대인이다.

어느 날 구입한 고재학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들이다.

이 책에는 평범한 아이를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는 유대인 자녀교육법을 담았다.

인터넷 사이트 ‘유대인정보(www.jinfo.org)’를 클릭하면 초기 화면에 유대인들의 노벨상 수상자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JEWISH NOBEL PRIZE WINNERS’란이 있다.

이 사이트에는 1901년부터 2011년까지 노벨상의 화학, 경제학, 문학, 의학, 평화, 물리학 등 6개 분야에서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01년부터 2009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는 180명으로 개인 수상자의 20%를 차지했으며 2004~2007년 유대인 수상자 비율은 전체 수상자의 30%를 넘어섰다.

이 책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입학사정 관제도다.

1922년 미국 하버드대는 신입생 가운데 유대인 비율이 20%를 넘어서자 유대인 합격 비율을 낮추기 위해 1923년 입학사정 관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어 예일대, 프린스턴대 등도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것에서 벗어나 잠재력과 특기 등 종합적인 능력을 선발하는 입학사정 관제를 도입, 유대인들의 쏠림 현상 예방에 나섰다.

그 결과 1933년 신입생 중 유대인 비율은 15%로 떨어졌으며 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던 예일대, 프린스턴대 등도 입학사정 관제를 도입했다.

최근 국내에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90년 전 미국 유수의 대학들이 유대인들의 대학 진학 견제용으로 도입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의 위대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70억 세계인구 가운데 1,700만에 불과한 유대인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교육이다.

이 책에서는 가정 교육, 학습능력, 창의력, 인성 교육, 진로상담 5개 분야를 주제로 상세하게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대민족이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탈무드식 교육방법을 잘 보여준다.

탈무드에서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면 벽을 책으로 채워라, 독서 후에는 반드시 토론을 해라,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말고, 무엇이 궁금한지 물어라, 공동체의 규율과 예의범절을 엄격하게 가르쳐라, 경제 조기교육으로 돈의 가치를 알게 하라 등 세계 최고의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작품명 : waltz



작품 해설 : 꽃들의 향기와 생명력이 강렬한 색채와 감미로운 터치로 표현되어 가만히 꽃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꽃이 내는 멜로디가 조화롭게 울려 퍼지는 심포니를 듣는 듯한 인상을 준다. 꽃이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빛깔을 통해 일종의 자유로움, 홀가분함, 그래서 춤을 추게 되는 기분 좋은 몸짓들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장 성 복

- 한한열중학교 교사
- 아트페어 3회(홍콩, 남송, 국제아트페스타)
- 경상남도 미술대전 특선 6회, 입선 1회
- 파리초청 한국현대 미술전(파리)
- 히로시마 평화 미술제(일본)
- 한국 현대미술의 모색전(미국)
-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광주)

이제 그만!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 학생의 징후

-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이유 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가해 학생의 징후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씹씀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학교폭력처리 절차



학교폭력 대처 방법

피해 학생 부모의 경우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 예)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

- **부인하지 마세요.**
•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 애들은 싸우면서 커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세요.